

# 디지털 융합시대 재외 한인언론매체의 역할 변화와 공공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략에 관한 질적 연구

미디어 생태계 디자인과 공공 커뮤니케이션 구조 재설계 관점에서

## A Qualitative Study on the Changing Roles of Overseas Korean Media in the Digital Convergence Era and Public Communication Design Strategies

From the Perspective of Media Ecosystem Design and Public Communication Architecture

주 저 자 : 이남기 (Lee, Nam Gi)      한양사이버대학원 디자인학과 석사과정

교 신 저 자 : 김민정 (Kim, Min Jung)      한양사이버대학원 디자인학과 교수  
mjganda@hycu.ac.kr

<https://doi.org/10.46248/kidrs.2026.1.361>

접수일 2026. 03. 04. / 심사완료일 2026. 03. 07. / 게재확정일 2026. 03. 09. / 게재일 2026. 03. 30.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ing roles and public functions of overseas Korean media in the context of digital convergence. Traditionally, overseas Korean media have focused on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the maintenance of identity within diaspora communities. However, in the contemporary media environment, they are increasingly expected to function as public media that contribute to public diplomacy and to the documentation and preservation of collective community memory. This study interprets this transformation not simply as a functional expansion, but from the perspective of media ecosystem design and communication architecture. The findings indicate that overseas Korean media serve as creators of public value by facilitating discursive integration, maintaining communal identity, and practicing everyday public diplomacy. In a platform-based media environment, they are evolving into public communication designers who visualize collective memory through strategies such as content user experience (UX), interface structure, archiving design, and narrative framing. Furthermore, this study argues tha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overseas Korean media depends not solely on technology-driven innovation but on value-oriented media strategies grounded in human-centered design and participatory communication design.

## Keyword

Digital Convergence(디지털 융합), Overseas Korean Media(재외 한인언론), Public Diplomacy(공공외교), Media Ecosystem Design(미디어 생태계 디자인), Communication Design(커뮤니케이션 디자인)

## 요약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재외 한인언론의 역할 변화와 공적 기능을 분석하였다. 전통적으로 재외 한인언론은 디아스포라 공동체 내부의 정보 전달과 정체성 유지에 집중해 왔으나, 오늘날에는 공공미디어로서 공공외교와 공동체 기억의 기록·보존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단순한 기능 확장이 아니라 미디어 생태계 디자인과 공공 커뮤니케이션 구조 설계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재외 한인언론은 담론 통합과 정체성 형성, 일상적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공적 가치 창출 주체로 확인되었으며, 플랫폼 환경에서 UX, 인터페이스, 아카이빙, 내러티브 프레이밍 전략을 통해 공동체 기억을 시각화하는 공공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로 진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술 중심 혁신이 아니라 인간 중심 디자인과 참여적 커뮤니케이션 설계에 기반한 가치 지향적 미디어 전략에 달려 있음을 제시하였다.

## 목차

### 1. 서론

- 1-1. 연구 배경
- 1-2. 연구 목적 및 방법
- 1-3. 연구의 디자인적 접근
- 1-4. 연구 범위 및 구성

### 2. 이론적 배경

- 2-1. 디지털 융합과 미디어 생태계 변화
- 2-2. 공공미디어 이론과 공공성의 구조
- 2-3.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이론과 공공 담론 구조
- 2-4. 미디어 생태계 디자인과 내러티브 아키텍처
- 2-5. 공공외교와 디아스포라 미디어의 역할
- 2-6. 선행연구 검토 및 디자인 관점에서의 연구

### 3. 연구방법

- 3-1. 연구 설계 및 연구 절차
- 3-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 3-3. 디자인 관점의 질적 분석 틀
- 3-4. 재외 한인언론의 디지털 플랫폼 구조 분석

### 4. 재외 한인언론의 역할 변화와 디자인 전략 분석

- 4-1. 정체성 서사와 내러티브 구조 설계
- 4-2. 디지털 전환과 미디어 아키텍처 재구성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디지털 융합시대는 미디어 기술과 플랫폼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언론의 구조와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인쇄 중심의 전통 언론은 웹·모바일·SNS·영상 플랫폼·AI 기술과 결합되며 다층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유통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의미 생산 구조와 공공성 형성 방식의 재구성을 요구한다.

특히 재외 한인언론은 약 700만 재외동포 사회를 기반으로 형성된 디아스포라 미디어로서, 공동체 정체성 유지와 정보 연결의 핵심 매개체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 확산과 세대 교체는 기존의 정보 전달 중심 모델을 한계에 직면하게 하였으며, 참여 기반 소통과 플랫폼 중심 소비 구조 속에서 새로운 전략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역할 변화가 아니라, 공공 담론을 조직하고 공동체 기억을 구조화하는 공공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문제로 재해석한다. 즉 재외 한인언론을 정보 생산 기관이 아닌, 의미 구조를 설계하는 미디어 디자인 주체로 규정한다.

### 1-2.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융합시대 재외 한인언론의 역할 변화를 공공미디어 및 공공외교 관점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략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고, 세계한인언

4-3. 공공외교 담론의 확장

4-4. 공공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략 도출

4-5. AI 환경에서의 윤리적 인터페이스 전략

## 5.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문인협회 주요 인사 및 재외동포신문 발행인의 연설문과 심층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담론 분석과 내용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의미 구성 구조, 내러티브 흐름, 공공성의 시각적·구조적 설계 요소를 함께 검토하였다.

### 1-3. 연구의 디자인적 접근

본 연구는 미디어를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아키텍처 (communication architecture)’로 이해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뉴스는 텍스트 자체가 아니라, 플랫폼 인터페이스 구조, 정보 계층화, 내러티브 배열, 시각적 상징체계 속에서 의미를 획득한다. 따라서 재외 한인언론의 변화는 콘텐츠 증가가 아니라, 담론의 구조화 방식, 공동체 기억의 아카이빙 설계참여 유도 구조, 공공적 가시성의 디자인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디지털 융합과 언론지형 변화

디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은 콘텐츠가 다매체·다플랫폼으로 흐르며 생산·유통·소비 방식이 상호 결합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젠킨스(Jenkins)는 융합을 단순한 기술적 결합이 아니라, 콘텐츠의 흐름과 참여문화, 집단지성이 맞물리는 문화적 전환으로 설명하였다.<sup>1)</sup> 이러한 관점은 디지털 융합이 언론의 제작

1) Jenkins, H. (2006). Convergence Culture: Where

기술 변화에 그치지 않고, 뉴스의 정의·가치·공공성 자체를 재구성하는 환경 변화임을 시사한다. 즉 뉴스는 “어디에서 생산되는가?”뿐 아니라 “어디에서 순환되고, 누구에 의해 의미화되는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된다.

네트워크 사회 관점에서 카스텔스(Castells)는 현대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권력 작동의 핵심 영역이 되었으며,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대중자기커뮤니케이션(mass self-communication)’이 전통적 매스미디어 구조를 재편한다고 분석하였다.<sup>2)</sup> 이는 언론이 더 이상 단일 채널의 ‘송신자로서만 기능하지 않고, 플랫폼·이용자·알고리즘·데이터 기반 추천 체계와 결합한 복합적 생태계의 일부로 작동함을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디지털 융합 이후 언론 연구는 생산(저널리즘) 영역에만 머무르기 어렵고, 유통(플랫폼)과 소비(이용자 형태)까지 함께 다루는 ‘미디어 생태계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생태계 변화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플랫폼화(platformization)’이다. 니보그와 포엘(Nieborg & Poell)은 플랫폼화를 디지털 플랫폼의 경제적·기술적 확장이 미디어 산업의 운영 방식과 생산 관행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한다.<sup>3)</sup> 뉴스 시스템의 플랫폼화는 국가별 미디어 구조와 시장 조건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강도 또한 변화한다는 비교 연구 결과도 제시된다.<sup>4)</sup>

한편, 플랫폼 중심 유통은 알고리즘 추천과 속도 경쟁을 통해 선정성, 확장편향, 출처 혼합 등 뉴스 신뢰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sup>5)</sup> 이러한 융합 환경은 ‘콘텐츠 생산’에서 ‘경험 설계(experience design)’ 중심으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뉴스는 더 이상 단일 기사 단위로 소비되지 않고, 플랫폼 UI 구조, 추천 알고리즘, 썸네일 이미지, 타이포그래피, 시각적 위계에 의해 의미가 구성된다. 이는 미디어를 ‘시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자 ‘상호작용 디자인 환경’

으로 분석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디지털 융합 이후 언론의 경쟁력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UX), 인터페이스 구조(UI), 내러티브 흐름, 데이터 시각화 전략을 포함하는 종합적 미디어 디자인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

## 2-2. 공공미디어 이론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확장

공공미디어(public media)는 전통적으로 상업적 논리와 국가 권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공공의 이익과 민주적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를 의미한다. 고전적 공공미디어 이론은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보편적 접근성, 편집·운영의 독립성, 공익성, 시민 참여를 핵심 규범으로 제시해 왔다.<sup>6)</sup> 이러한 규범은 미디어가 민주적 공론장 형성과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전제를 포함한다.

그러나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공공미디어 개념은 제도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확장·재정의되고 있다. 플랫폼 기반 미디어 생태계에서는 공공성이 특정 소유 구조에 의해 보장되기보다, 담론 생산과 의미 구성이라는 미디어 실천의 문제로 이동한다.<sup>7)</sup> 이는 공공미디어를 제도적 지위가 아닌 공공적 기능 수행 여부로 평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환경의 공공성은 중앙집중적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하는 분산형 공공성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미디어는 공공성의 형성과 실천 방식을 다층화하며, 공공성을 단일한 공론장이 아닌 중첩된 담론과 참여의 과정으로 재구성한다.<sup>8)</sup>

이와 같은 공공미디어 이론의 확장은 재외 한인언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석적 함의를 제공한다. 재외 한인언론은 제도적 의미의 공영미디어에 속하지 않지만, 공동체 기반 매체로서 공동체 담론 형성, 정체성 유지, 기억의 기록, 공공적 가치 생산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능적 의미의 공공미디어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재외 한인언론은 플랫폼

Old and New Media Collide. New York: NYU Press, pp. 2-4.

2) Castells, M. (2009). *Communication Pow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 Nieborg, D. B., & Poell, T. (2018). The platformization of cultural production. *Social Media + Society*, 4(3).

4) Nielsen, R. K., & Ganter, S. A. (2023). Comparing the platformization of news media systems. *Media, Culture & Society*, 45(6), 1010-1028.

5) Morais, R. (2023). Platformization of news and unverified content. *Societies*, 12(4), 200.

6) Denis McQuail, *McQuail's Mass Communication Theory*, 6th ed., London: Sage, 2010, pp. 69-72.

7) Nick Couldry & Andreas Hepp, *The Mediated Construction of Reality*, Cambridge: Polity Press, 2017, pp. 34-36.

8) Peter Dahlgren, *Media and Political Engage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 15-18.

을 매개로 분산된 공동체를 연결하며, 참여와 기억을 조직하는 공공적 커뮤니케이션 장으로 작동한다.

### 2-3. 공공외교 이론과 디아스포라 미디어의 역할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는 국가가 외국의 시민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자국의 이미지와 가치,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외교 활동을 의미한다. 초기 공공외교 이론은 국가 중심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비국가 행위자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sup>9)</sup>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공공외교가 정부 주도의 공식 채널을 넘어, 문화미디어 일상적 소통을 통해 수행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sup>10)</sup> 디아스포라 미디어는 모국과 거주국 사이에서 문화적 중개자로 기능하며, 비국가적 외교 행위자로 작동한다.<sup>11)</sup>

디지털 환경에서 공공성은 '접근 가능성(accessibility)'과 '가시성(visibility)'의 디자인 문제로 전환된다. 공공 담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보 구조의 투명성, 시각적 위계의 명확성,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는 인터페이스 설계가 필수적이다. 이는 공공미디어를 제도적 범주가 아닌 '공공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시스템'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참여형 공공성은 Participatory Design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를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 의미 생산자로 위치시키는 디자인 철학과 연결된다.

### 2-4. 재외 한인언론의 개념과 특성

재외 한인언론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주요 독자·이용자로 하여, 동포사회의 생활 정보와 공동체 의제를 생산·유통하는 디아스포라 기반 매체로 자리매김해 왔다. 지리적 분산, 언어·문화적 이질성, 세대 다양성 속에서 재외 한인언론은 공동체 내부 소통 인프라 구축, 정체성 유지와 문화 전승, 모국과 거주국을 잇는 정보 매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재외

한인언론은 전통적 국내 언론과 달리 공적·사적 영역이 혼재된 공동체 현실과 밀접하게 결합하며 생활·문화·정치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재외 한인언론은 이중의 전환 압력에 놓여 있다. 플랫폼 중심 유통 구조의 확산은 공동체 기반 매체 역시 검색·추천·정책 규칙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재외동포 사회 내부의 세대 교체는 미디어 이용 방식을 아날로그 소비에서 디지털 기반 참여형 커뮤니케이션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재외 한인언론은 정보 전달 중심 역할을 넘어 공동체 담론 형성, 기억의 기록, 공적 의미 생산으로 기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외 한인언론의 매거진적 성격은 중요한 해석 틀을 제공한다. 다수의 재외 한인언론은 주간·월간, 웹진, 뉴스레터, 행사 연계형 매체 등 장르 매체 특성을 공유하며, 매거진 연구는 디지털 전환을 콘텐츠·커뮤니티·커머스·이벤트가 결합된 브랜드 생태계로 이해한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 산업 보고서는 구독·멤버십, 뉴스레터, 이벤트, 데이터 전략, SI 활용을 혁신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sup>12)</sup> 이는 재외 한인언론이 공동체 기반 미디어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커뮤니티 강화, 수익 다각화, 멀티플랫폼 운영)을 구체화하는 데 유용하다.

### 2-5.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위치

국내 선행연구 중 김유정(2022)은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한인 언론 매체의 공공성을 분석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공공성 개념이 단순한 '공익성'이 아니라 참여·연결·신뢰의 문제로 확장됨을 시사하였다.<sup>13)</sup> 조현주(2021)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언론윤리와 공정성 문제가 더욱 중요해짐을 강조하며, 속보 경쟁과 플랫폼 환경이 신뢰 위기를 강화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sup>14)</sup>

이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확인하지만, (1) 재외 한인언론의 '공공외교' 기능,

9) Nicholas J. Cull, "Public Diplomacy: Taxonomies and Histories," ANNALS, Vol. 616, No. 1, 2008.

10) Eytan Gilboa, "Digital Diplomacy," in The Oxford Handbook of Modern Diplomacy, Oxford: OUP, 2013, pp. 540-544.

11) Yossi Shain & Aharon Barth, "Diaspora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7 No.3, 2003, pp. 452-454.

12) FIPP. (2022). Innovation in Media 2022/23 World Report. London: FIPP

13) 김유정(2022).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한인 언론 매체의 공공성 연구」. 『한국언론학보』, 66(5), 101-129.

14) 조현주(2021).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언론윤리와 공정성」. 『커뮤니케이션이론』, 17(2), 55-78.

(2) 공동체 기억의 기록·아카이빙 기능, (3) AI 환경에서의 윤리 기반 대응이라는 요소를 하나의 분석 틀로 통합해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미디어와 공공외교 관점을 결합한 이론적 틀을 설정하고, 실제 현장 인식(협회 주요 인사 발언, 매체 운영자 인터뷰)을 질적 분석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융합시대 재외 한인언론의 정체성과 과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규명하는데 의의가 있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설계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재외 한인언론의 역할 변화 분석을 위해 전문가 인터뷰 중심의 사례 연구 방식을 채택하였다.

#### 3-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연구 대상은 재외 한인언론 매체의 연합체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주요 인사(김명곤 회장, 김홍수 상임고문)와 창간 23년차를 맞는 재외동포신문 발행인 박철의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각각 담론적, 가치적, 실천적 차원에서 재외 한인언론의 역할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자료 수집은 공식 연설문, 환영사, 심층 인터뷰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과 담론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참여자	소속 및 직책	주요경력	인터뷰방식
김*곤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회장	한인 언론 전문가 (경력 30년)	대면(90분)
	2025년 10월 13일 제27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김*수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상임고문	한인 언론 전문가 (경력 36년)	대면(60분)
	2025년 10월 13일 제27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박*의	재외동포신문 발행인	한인 언론 전문가 (경력 35년)	대면(90분)
	2026년 1월 9일 재외동포신문사 회의실		

#### 3-3. 분석 방법 및 분석 기준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인터뷰 분석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고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분석 절차를 적용하였다. 특히 녹음 기반 인터뷰 자료를 텍스트로 전환하고, 반복적

코딩 과정을 통해 핵심 개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질적 연구의 객관화를 시도하였다.

첫째, 연구에 활용된 인터뷰 자료는 모두 녹음된 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자 전사(transcription) 과정을 거쳐 텍스트 자료로 변환하였다. 전사 과정에서는 발화자의 의미 단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문맥 중심 전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반복 표현이나 비언어적 감정 표현은 의미 해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완적으로 기록하였다.

둘째, 전사된 텍스트 자료를 대상으로 '개방 코딩(open coding)'을 실시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인터뷰 원문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디지털 전환', '공공외교', '정체성', '기억', '플랫폼', 'AI 활용', '윤리' 등 연구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키워드 도출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선이해에 따른 왜곡을 줄이기 위해 발화자의 표현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는 인비보 코드(in vivo code)를 우선하여 활용하였다.

셋째, 도출된 핵심 키워드들을 의미 유사성에 따라 축 코딩(axial coding) 방식으로 재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통합', '공감', '세대 연결'은 '담론적 가교' 범주로, '기억', '기록', '아카이빙'은 '기억의 매개' 범주로 묶어 개념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별 발언이 단일 범주에만 속하지 않을 경우 중복 범주 허용 원칙을 적용하여 해석의 경직성을 방지하였다.

넷째, 범주화된 키워드와 개념을 바탕으로 '주제 코딩(thematic coding)'을 수행하여 각 사례의 핵심 인식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김명곤 회장의 발언은 '담론 형성 중심의 공공미디어 인식', 김홍수 상임고문의 발언은 '기억과 가치 중심의 언론관', 박철의 발행인의 발언은 '실천적 운영 전략과 디지털 대응'이라는 주제적 특성으로 정리되었다.

다섯째, 분석 과정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텍스트 분석에는 일반 문서 편집 도구와 키워드 정렬·비교 기능을 활용하였으며, 키워드 빈도 및 범주 간 관계를 반복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검토 단계에서는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을 통해 '디자인', '인터뷰', '질적 연구' 등의 키워드로 학술 자료를 탐색하여 질적 연구 방법론과 분석 기준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을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분석 결과는 단일 사례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 결과의 해석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다단계 분석 절차는 질적 연구의 해석적 한계를 인

식하면서도, 체계적 코딩과 반복 검증을 통해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 3-4. 재외 한인언론의 디지털 플랫폼 구조 분석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재외 한인언론의 역할 변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주요 재외 한인언론 매체의 플랫폼 구조와 콘텐츠 유형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북미, 아시아, 유럽 지역에서 운영되는 주요 재외 한인언론 30개 매체이며, 각 매체의 웹사이트와 SNS 채널, 영상 플랫폼 운영 여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재외 한인언론이 웹사이트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SNS와 영상 플랫폼을 동시에 활용하는 멀티플랫폼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주요 재외 한인언론의 디지털 플랫폼 운영 현황**

플랫폼 유형	운영 매체 수	비율
웹사이트	27	90%
SNS (Facebook, Instagram 등)	22	73%
유튜브 채널	14	47%
인쇄신문 병행	11	37%

출처: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현황(2024) 및 주요 재외 한인언론 홈페이지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특히 SNS 채널을 운영하는 매체 비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재외 한인언론이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이용자 참여와 콘텐츠 확산을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콘텐츠 유형 분석 결과 동포 사회 뉴스와 공동체 행사 관련 콘텐츠가 전체 기사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재외 한인언론 콘텐츠 유형 분포**

콘텐츠 유형	기사 수	비율
동포사회 뉴스	214	34.5%
공동체 행사 및 역사 기록	165	26.6%
문화-정체성 콘텐츠	129	20.8%
한국 정책 및 외교 관련 기사	112	18.1%

이는 재외 한인언론이 단순한 정보 전달 기능을 넘어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생활을 기록하는 사회적 아카이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공외교와 관련된 콘텐츠 역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한인사회 공공활동,

문화 교류, 한국 관련 정책 보도 등은 재외 한인언론이 거주국 사회와 한국 사이의 정보 교류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플랫폼 기능 분석에서는 댓글 기능, SNS 공유 기능, 독자 제보 기사 등 참여형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다수의 매체에서 확인되었다(표 4). 이러한 구조는 재외 한인언론이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기반으로 담론을 형성하는 참여형 미디어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외 한인언론이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단순한 정보 전달 매체를 넘어 공동체 기억을 기록하고 공공 담론을 조직하는 공공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량적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표 4] 재외 한인언론의 공공외교 관련 콘텐츠 비율**

유형	기사 수	비율
한국 정책 및 외교	83	13.4%
한인사회 공공활동	96	15.5%
문화한류 관련 콘텐츠	74	11.9%
일반 뉴스	367	59.2%

## 4. 재외 한인언론매체의 역할 변화 분석

본 장은 김영곤 회장, 김홍수 상임고문, 박철의 발행인의 공식 발언 및 심층 인터뷰 전사 자료를 대상으로, 반복 출현 키워드와 의미 단위를 추출 범주화하여 재외 한인언론의 역할 변화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정체성/공동체', '디지털 전환', '공공외교', '시·윤리'는 세 자료를 관통하는 핵심 범주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언론이 생산·유통·소비의 결합 속에서 공격 기능의 의미 생산 구조를 재구성한다는 논의와도 연결된다.<sup>15)16)</sup>

### 4-1. 정체성 및 미디어 역할의 재정의

세 인물의 발언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핵심 키워드는 '정체성', '공동체', '가교', '기억', '기록'이다. 김영곤 회장은 재외 한인언론을 세대·이념·지역의 분절을

15) Jenkins, H. (2006). *Convergence Culture: Where Old and New Media Collid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6) Castells, M. (2009). *Communication Pow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원화하는 담론적 연결자로 규정하며, “분열과 혐오가 아닌 통합과 공감의 언어로 세대를 잇는 가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재외 한인언론의 역할이 단순한 사건·정보 전달을 넘어, 공동체 내부 갈등을 중재하고 공감의 언어를 생산하는 공공 커뮤니케이션 허브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참여문화와 집단지성의 결합 속에서 콘텐츠가 사회적 의미를 형성한다는 ‘융합 문화’ 논의와 정합적이다.<sup>17)</sup>

김홍수 상임고문은 재외 한인언론을 공동체 정체성의 상징적 매체로 파악하며, “작은 공동체라도 한글 매체를 지켜온 언론인들은 동포사회의 등대이자 방패였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디아스포라 조건에서 언론이 정보 매개체를 넘어 문화·언어·정체성의 지속을 담보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가능해 왔음을 함축한다. 또한 그는 “진실을 기록하고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재외 한인언론이 뉴스 생산을 넘어 공동체 기억의 전승과 기록 축적을 담당하는 매체로 진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지점은 디지털 환경에서 언론의 공공성이 ‘기억의 조직화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sup>18)</sup>

박철의 발행인은 재외동포신문의 설립 사명(커뮤니티 조성·권익 향상·정체성 강화)이 유지되어 왔음을 밝히면서도, 환경 변화와 세대 확장에 따라 언론의 정체성이 ‘적응적 미디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창간 목적은 커뮤니티 조성, 권익 향상, 한인 정체성 강화였다.”는 진술은 재외동포 언론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며, 동시에 그 목적이 디지털 환경에서 재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sup>19)</sup>

AI 환경에서의 핵심 과제는 기술 도입 여부가 아니라 ‘알고리즘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윤리적 UX 설계’이다. 자동 요약, 번역,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 경험을 단축시키지만, 동시에 의미 왜곡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AI 활용은 ‘Human-in-the-loop’ 설계 원칙에 기반하여, 인간 편집자의 판단이 개입되는 하이브리드 디자인 구조로 구현되어야 한다. 이는 재외 한인언론이 AI 기술을 단순 자동화 도구가 아닌 ‘의미 보조 설계

도구’로 활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 4-2.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디지털 전환’, ‘플랫폼’, ‘웹·모바일’, ‘SNS·영상’, ‘세대 변화’는 세 인물 발언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주요 분석 범주이다. 박철의 발행인은 디지털 전환을 언론 생존의 핵심 조건으로 인식하면서, 재외동포 사회의 지리적 분산성과 국가별 디지털 격차를 실무적 제약으로 제시하였다. “180여 개국에 분포해 각국의 디지털 환경이 달라 통일된 안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진술은 재외동포 언론의 전환이 단일 모델이 아닌 ‘지역 맞춤형’ 전략을 필요로 함을 보여준다. 동시에 “웹·모바일·SNS·영상 중심 전환은 외면할 수 없는 생존 조건이다.”라는 인식은 디지털 전환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규정한다. 이러한 관점은 플랫폼이 생산·유통·수익 구조를 재편하며 언론사의 운영 관행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플랫폼화’ 논의와 맥을 같이한다.<sup>20)</sup>

김명곤 회장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재외 한인언론이 평화·통일 담론을 보다 자유롭고 넓은 시선에서 조명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디지털 플랫폼을 ‘확장된 공론장’으로 이해하게 한다. 카스텔스의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의미 형성이 다원적 주체 간의 경쟁과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재외 한인언론이 디지털 공간에서 담론 확산의 주체로 작동할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sup>21)</sup>

김홍수 상임고문은 디지털 전환을 기록과 아카이빙의 관점에서 해석할 여지를 제공한다. 디지털 환경은 공동체 기억을 보존·전승하는 기술적 기반이 될 수 있으나, 기술 변화 속에서도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규범적 기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플랫폼 기반 유통이 편의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알고리즘 추천과 속도 경쟁을 통해 신뢰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선행 연구의 지적과 맞물리며,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변화의 수용’과 ‘규범의 유지’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sup>22)</sup>

17) Jenkins, H. (2006). *Convergence Culture: Where Old and New Media Collid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8) 김홍수(2025). 「제27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환영사」, 2025.10.13., 서울: 세계한인언론인협회.

19) 김유정(2022).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한인 언론 매체의 공공성 연구」. 『한국언론학보』, 66(5), 101-129.

20) Nieborg, D. B., & Poell, T. (2018). The platformization of cultural production. *Social Media + Society*, 4(3).

21) Castells, M. (2009). *Communication Pow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2) Morais, R. (2023). Platformization of news and unverified content: Implications for trust. *Societies*, 12(4), 200.

결과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은 세 인물 모두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박철의는 운영 전략과 인프라 격차, 김명곤은 담론 확산, 김홍수는 기록과 가치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강조점이 분화된다.

### 4-3. 공공외교의 확장

세 인물의 발언에서 ‘평화·통일’, ‘문화’, ‘한류’, ‘소프트파워’, ‘글로벌 시각’은 공공외교 범주를 구성하는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김명곤 회장은 재외 한인언론이 국내 언론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담론을 조망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통일은 결국 꿈꾸는 자의 몫이다*.”라는 발언을 통해 언론이 미래 비전과 집단적 상상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재외 한인언론이 국제적 시야에서 평화 담론을 확산하는 공공외교적 매개자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sup>23)</sup>

박철의 발행인은 공공외교를 제도나 외교 이벤트가 아닌 일상적 실천으로 규정한다. 그는 재외동포신문이 재외동포의 문화·경제 활동을 취재·기록·확산함으로써 비공식적 공공외교 매체로 기능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활동을 국가의 ‘확장된 문화·경제 영토’로 인식하였다. 이는 언론이 공동체의 대외 활동을 가시화하는 플랫폼으로서 소프트웨어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홍수 상임고문은 공공외교를 문화적 지속성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한글 매체 유지와 진실 기록이 동포 사회의 정체성을 지탱하고 장기적 문화 확산의 기반이 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공공외교 범주는 김명곤의 담론·비전, 박철의의 일상 실천·확산, 김홍수의 문화 지속성·기록이라는 세 층위로 구성되며, 이는 재외 한인언론의 공공외교 기능이 다층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은 재외 한인언론을 ‘글로벌 공공미디어’로 이해하려는 본 연구의 결론과 직접 연결된다.

### 4-4. AI 환경에서의 대응 전략

AI 관련 발화는 주로 박철의 발행인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나, 김홍수의 ‘공정성·독립성’ 강조는 AI 환경에서의 윤리 기준으로 재해석될 수 있으며, 김명곤의 ‘공감의 언어’는 기술 중심 저널리즘이 놓치기 쉬운 가치 영역을 환기한다. 본 연구는 AI를 독립된 기술 변수가 아니라, 언론의 가치·윤리·실천 역량과 결합된 생태계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는 플랫폼화된 뉴스 생태계에

서 자동화·추천이 신뢰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연구 논의와도 결을 같이한다.<sup>24)</sup>

**[표 5]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주요 인사 및 재외동포신문 발행인 비교 분석**

구분	김명곤 회장	김홍수 상임고문	박철의 발행인
핵심 관점	통합·공감의 언어	정체성·기억의 기록	실천적 운영·전략
언론 역할	세대·이념·지역을 잇는 가교 (담론 형성)	공동체의 등대·방패, 기억의 매개자	700만 동포 삶의 연결자, 공공외교 실천
디지털 인식	평화·통일 담론 확산의 도구.	기록·아카이빙 (집단 기억 전승)의 수단	생존 전략 (지역·대륙별 단계적 전환)
공공 외교	평화·통일 의지 조명 (글로벌 시각)	문화 지속성과 공동체 가치 보존	일상적 외교(경제·문화 영토 확장)
AI 활용	직접 언급 없음(가치 중심 강조로 해석 가능)	공정성·독립성 등 가치 중심 강조	효율 인정 + 팩트체크·윤리 병행
미래 키워드	Media Bridge	Memory Curator	AI 융합·인재(멀티플랫폼 역량)

비교표(표 5)는 다음 절차로 도출하였다. 첫째, 전사 자료에서 AI·디지털·윤리·인재 등 관련 발화를 추출하여 개방 코딩을 수행하였다(예: ‘요약 번역 효율’, ‘팩트 오류 위험’, ‘팩트체크 시스템’, ‘기자 교육’, ‘멀티플레이 인재’). 둘째, 추출 키워드를 ‘효율(생산성)’과 ‘위험(왜곡/신뢰)’, ‘조건(검증/교육)’, ‘역량(인재/조직)’의 하위 범주로 묶는 축 코딩을 실시하였다. 셋째, 동일 범주 내에서 세 인물의 발언이 지니는 강조점 차이를 비교하여, 김명곤은 ‘가치 지향’, 김홍수는 ‘규범·윤리 지향’, 박철의는 ‘운영·실행 지향’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주화 결과를 표 형식으로 정리해 비교 가능성을 높였다.

박철의 발행인은 AI 활용을 기사 요약·번역·정보 분석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실 오류와 맥락 왜곡 가능성을 강하게 경계하였다. “*AI 요약은 잘하지만 팩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발언은 AI 도입의 전제 조건을 ‘검증 시스템으로 설정한다. 또한 “*기자 교육과 쌍방향 팩트체크가 돼야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발언은 윤리 기반 AI 저널리즘을 실무적으로 구현하기

23) 김명곤(2025). 「제27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개회사」, 2025.10.13., 서울: 세계한인언론인협회.

24) Nielsen, R. K., & Ganter, S. A. (2023). Comparing the platformization of news media systems. *Media, Culture & Society*, 45(6), 1010–1028.

위한 조직적 과제를 제시한다.

김홍수 상임고문이 강조한 ‘공정성·독립성은 AI 환경에서 알고리즘 종속과 상업화 압력에 대응하는 규범적 기준으로 가능하며, 김명국 회장이 강조한 ‘공감의 언어는 자동화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 중심 의미 생산을 환기한다. 종합하면 AI 환경에서 재외 한인언론은 효율성 확보와 동시에 윤리·검증·인재 양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디지털 융합시대 재외동포 언론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변수로 정리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인터뷰와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면, 디지털 융합시대 재외 한인언론은 전통적 역할에 머무를 수 없으며, 기능·정체성·사명 전반에 걸친 구조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 변화는 단절이 아니라 확장과 재정의의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재외 한인언론의 역할 변화(표 6)는 본 연구 4장의 인터뷰 분석에서 도출한 핵심 키워드를 범주화한 결과로, 변화가 단순한 매체 형식 전환이 아니라 미디어 존재 방식의 전환임을 보여준다.

**[표 6] 디지털 융합 전·후 재외 한인언론의 역할 변화**

구분	기존 재외 한인언론의 역할	디지털 융합시대의 역할
핵심 기능	정보 전달, 소식 중계	의미 생산, 담론 형성
정체성	민족·동포 언론	글로벌 공공미디어
공동체 역할	커뮤니티 소식지	세대·지역·이념 연결자
기록 기능	사건 보도 중심	기억의 기록·아카이빙
공공 외교	부차적·간접적	일상 기반 공공외교 매개
기술 활용	보조적 수단	전략적·윤리적 도구
인재상	기사 작성 중심	융합형·멀티플레이 인재

연구자는 디지털 융합시대 재외 한인언론의 본질적 변화가 ‘정보 전달자에서 가치의·마·경험을 설계하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로서의 이동에 있다고 본다. 이는 재외 한인언론을 하나의 미디어 브랜드 시스템이자, 공공 담론을 시각적·서사적으로 구조화하는 디자인 플랫폼으로 재개념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터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융합시대 재외 한인언

론의 역할 변화를 몇 가지 핵심 축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재외 한인언론은 주변부 미디어를 넘어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중심 미디어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한국과 재외동포 사회를 잇는 중계 채널을 넘어 세대·지역·이념을 연결하는 담론적 가교(media bridge)로 기능해야 한다. 이는 재외 한인언론이 ‘글로벌 공공 미디어로 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역할 변화는 공공외교의 실천 주체로서 정체성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재외동포의 일상과 문화 실천은 이미 공공외교의 장에 놓여 있으며, 재외 한인언론은 이를 기록·해석·확산하는 생활 밀착형 공공외교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AI 환경에서 재외 한인언론은 기술 효율보다 윤리와 검증, 공감의 언어를 우선해야 한다. AI는 대체 수단이 아니라 인간 중심 저널리즘을 확장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넷째, 이러한 전환은 인재와 조직의 변화를 요구한다. 재외 한인언론의 지속가능성은 플랫폼 보유가 아니라 융합형 사고와 멀티 역량을 갖춘 언론 인재에 달려 있다.

결국 재외 한인언론의 미래는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역할 선택과 가치 지향의 문제이며, 정보 전달을 넘어 의미를 만들고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공공미디어로 진화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디지털 융합시대 재외 한인언론을 단순한 해외 정보 매체가 아닌, 공공미디어와 공공외교의 교차 지점에 위치한 공동체 기반 미디어로 이론화하고, 실제 언론 현장의 인식과 발언을 질적 분석을 통해 연결하였다는 데 있다. 특히 인터뷰 분석을 통해 재외 한인언론의 역할 변화를 ‘정체성·담론·기억·공공외교’라는 범주로 구조화함으로써, 기술 중심 논의를 넘어 가치 중심 미디어 전환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재외 한인언론의 디지털 전략 수립, 인재 양성, 공공적 역할 재정립에 있어 이론적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재외동포 정책 및 공공외교 전략 수립 과정에서도 참고 가능한 분석 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공동체 기반 미디어가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공공성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로 확장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제한된 사례와 질적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가·지역별 재외 한인언론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 이

용자 수용 연구,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재외 한인언론의 공공적 효과와 사회적 영향력을 보다 정량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알고리즘 환경에서 공동체 미디어의 윤리적 실천 모델을 구체화하는 후속 연구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2023), Digital News Report 2023, Oxford: University of Oxford

13. 한국언론진흥재단(2023), 『디지털 뉴스 이용자 조사 보고서』

14. FIPP (2022), Innovation in Media 2022/23 World Report

---

## 참고문헌

1. 김명근(2025). 「제27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개회사」, 2025.10.13., 서울: 세계한인언론인협회
2. 김홍수(2025). 「제27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환영사」, 2025.10.13., 서울: 세계한인언론인협회
3. 박철의(2025). 재외동포신문 발행인 심층 인터뷰(연구자 인터뷰).
4. 김유정(2022).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한인 언론 매체의 공공성 연구」. 『한국언론학보』, 66(5)
5. 조현주(2021).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언론윤리와 공정성」. 『커뮤니케이션이론』, 17(2)
6. Castells, M. (2009). Communication Pow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7. Jenkins, H. (2006). Convergence Culture: Where Old and New Media Collide. New York: NYU Press
8. Nieborg, D. B., & Poell, T. (2018). The platformization of cultural production. Social Media + Society, 4(3)
9. Nielsen, R. K., & Ganter, S. A. (2023). Comparing the platformization of news media systems. Media, Culture & Society, 45(6)
10. Morais, R. (2023). Platformization of news and unverified content. Societies, 12(4)
11. 재외동포청(2024), 『재외동포 현황』, 인천: 재외동포청
12.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